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3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6년 2월 22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피엘에이 전기도 끊겼다!

전기 끊기고, 설거지도 찬물로..

임금 체불 11개월째, 파업 46일째인 지난 19일, 피엘에이의 전기마저 끊어졌다. 임금체불은 물론, 전기세도 내지 않아 한 전에서 전기를 끊은 것이다. 식당 외주업체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난방비용을 아낀다고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아서 고령의 식당 여성노동자는 이 추운 겨울에 찬물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해야 했다. 전기가 끊어진 공장은 암흑에 난방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자본이 망쳐놓은 현장이지만 조합원들인 곳곳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표이사, 교섭에서도 입 다물어

전기가 끊기기 하루 전, 교섭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나왔고, 노동부도 참관했다. 대표이사는 전기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다음 날 전기는 결국 끊겼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해결하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10개월째 체불이 이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기마저 끊기게 될 대전공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대

표이사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아무 것도 내놓지 않았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피엘에이 자본은 단 한 번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작년 임금체불을 주도했던 전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12월 주주총회 이후 새로 들어온 현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피엘에이라는 회사의 껍데기만 두고 다른 꿈꾸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경영진 마음대로 되는 것 없을 것이다.

공장 정상화, 우리가 만든다!

피엘에이지회 조합원 동지들은 빚지며 싸우고 있다. 임금체불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워 여기저기서 빚을 내고 있다. 또한 임금이 체불되다보니 조합비도 없는 상태다. 피엘에이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전기가 끊긴 현장을 지키기 위해 발전기도 필요하고, 난로도 필요하다. 그리고 동지들의 연대의 마음도 필요하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에 파업 연대!

19일 청주시청 앞에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가득했다. 유성, 콘티넨탈, 보수전장, 피엘에이 지회 조합원들은 파업까지 하면서 청주시청으로 모였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서였다.

청주시가 대전 의명 의료재단을 새로운 수탁자로 결정하면서 병원 재개원이 가까워졌다. 그러나 의명재단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심지어 의명재단의 기자회견에서 청주시 공무원이 사회를 보고 자료배포까지 했다. 청주시와 의명 의료재단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결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주시 노인병원의 투쟁에 금속 조합원들이 아주 소중한 연대를 보여줬다. 노조 파괴에 맞서 함께 싸우고, 노인복지와 의료 공공성을 함께 지키는 의미가 있다. 지역 연대를 더 크게 만들어서 노인병원 투쟁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자.

금속노조 114차 중앙위원회

일시 : 2016.02.24(수) 14시
장소 : 금속노조 회의실

박근혜 정권 3년 규탄대회

일시 : 2016.02.25(목) 18시
장소 : 충북 전역
대전 타임월드 앞